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 제

■ 2017년도 기도제목

- 1) 재창조의 권능 (시편 62:11)
2) 교계와 해외선교 (디모데전서 2:4)
3) 아름다운 성전 (시편 37:6)
4) 목자의 열매 (시편 126:5,6)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	김성태	김요한	주현권	한성현	천양경(명)
	조대열	차현철	김원덕	조영희	해외교사/
여 부 목 사 /	정주현	김영석	양동익	김영석	한주경(명)
	이성룡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아프리카:
선 교 목 사 /	이광근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정영호, 이호수, 한진법, 김은주, 황민기
	박광현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홍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고 네마 시카텐다(협력)
전 도 사 /	이성규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일 분: 유승길, 최병만, 정경태, 김건태, 이창미, 류은경, 이수행, 김길모, 도가꾸니, 야스히로, 가토모 이사오, 야마시타 요시미, 고마쓰 미기, 이토모 마사야끼, 도가꾸니 미야코, 이토모 도끼코
	정유석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중 남 미: 페루(김항열), 콜롬비아(정정연) 온두라스(에스태반 한달)
여 전 도 사 /	정유석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지 웅
	정유석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미 국: 남상승, 심 제임스, 권기봉, 이재백, 최배연, 김항열, 로버트 존슨, 비탈리 피쉬버그, 케나타: 김준호
영 별 기	김수정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영 국: 제인 옴플로고파, 데이빗 무카사
	김수정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대 일: 이바울, 키르멘 클린케르트(협력)
선 교 목 사 /	페르난도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대 만: 김경희, 네 팔, 이해찬
	천우준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대 리 리: 조찬형, 성 속, 김은자, 김주봉, 엄재봉
여 전 도 사 /	이관규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인 도: 한정화, 김상휘, 피시얼 라자두라이
	이관규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대 글: 발자락 푸레브, 앙하비아라 간바타라
여 전 도 사 /	박지영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태 국: 이재원, 이수옥, 말레이시아: 지정훈
	박지영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싱가포르: 황필핑,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전 도 사 /	차영석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파키스탄: 알선 존 길, 샤킬 퍼베이즈, 타리크 지아
	최성우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중 주: 배승환
교 육 전 도 사 /	이은미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중 동: 노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강하나,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이은미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이정호 배철효 한홍렬 빈성건 김영남 오성준 이규동 이도립 최종태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이우철 주오중 조일근 이시현 박광호 문경진 유익선 허문복 박진무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최정수 이종선 천재식 김재규 김희석 오세영 박영준 이기세 정안권
지 교 회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박노철 김왕기 황준하 김학용 한광현 박현재 정권하 김영식 박홍기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양우용 박영준 문대천 최을호 김대석 심상식 박상영 김용철 안장석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성낙훈 김홍만 진영도 김규식 정은래 송윤근 김진홍 김승문 송석길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정우석 이수형 이기중 장영주 이익석 정원진 이성기 임영석 김종태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이치현 박정환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김종무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전중익 박영갑 양동록 송창섭 김용남 홍영일 김준호 빈성남 조금석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이강복 손승안 김용덕 정지철 윤창수 이재환 권태복 김준택 최병재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채운석 구명서 이수현 김석환 김중술 신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환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이덕환 김병희 최규수 배병영 최재진 허은범 오광성 이달용 정준환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정태찬 홍영식 고광규 이병철 김양중 신행철 김관형 임종우 이상태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서희석 신상문 정성식 정진호 이강현 김부사 김용중 임나훈 이상병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김정호 김현철 정성식 이상원 이재근 김진석 김준성 마문규 마수용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김광식 이용석 김한구 이상상 김순오 이상우 천대현 마문복 유승걸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성병모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이교순 강재관 김영조 이상철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장세용 양대식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주구 이기완 이보영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조 춘 한경도 정용채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영미뉴얼 성가대: 김한구 실뽕 성가대: 조관형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나 사 성가대: 이 진 싹뽕 성가대: 최정호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현 돌 성가대: 양혜숙 너시오펜스트라: 조관형(부:김한구)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민연홍 이 진 임희숙 유보경 서유진 김서영 이현미 고여숙 김효주
기 도 원 교역자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김선자(오르간)
	김영선	김태환	장영선	김영선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31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44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통성으로	다 같 이
찬 송 355장	다 같 이
기 도	1부/ 강경희 전도사 2부/ 임학영 목사
성경봉독 민수기 12:3,7	사 회 자
찬 양	1부/ 주 나의 모든 것/ 나사렛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2부/ 시편 121/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선(7)-모세④	신동초 목사
통성기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찬양 14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설 교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설 교 자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조혁희 목사

대표기도	주현철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13:11~14/ 사회자
찬 양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 송	미라클
설 교	빛의 갑옷을 입자/ 구희선 전도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서동욱 목사

대표기도	서덕분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8:13~22/ 사회자
찬 양	금빛성가대
설 교	욥기 강해(41)/ 신동초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1부 사회/ 김요한 목사
2부 인도/ 신푸름 전도사

1부 예배

대표기도	한지민 전도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8:32/ 사회자
찬 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 송	이소영 집사, 사랑울동단
설 교	진리의 자유함/ 김수정 목사

휴식 시간

2부 찬양과 기도

2-5회 4차 다니엘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금요일은 제외)
장소/ 본당 및 2성전
인도/ 이복님 원장
기간/ 6월 5일(월) ~ 6월 25일(주일)
주제/ 축복

새벽예배

인도/ 최영신 전도사
시간/ 매일 오전 5시
(토요일은 제외)
장소/ 2성전

다음주 예배 위원

예 배	사 회	대 표 기 도
주일 1부 대예배	이석규 목사	장성식 목사
주일 2부 대예배	조대희 목사	박흥기 장로
주일 저녁예배	조수열 목사	구희선 전도사
수요 예배	이영철 목사	조민경 교육전도사
금요 철야예배	길태식 목사	문태규 목사
새벽예배 인도 서덕분 전도사		

6월 예배 봉사자

■ 안 내 위 원

주일 1부 / 주일 2부	장인선, 최명숙5, 김미정7, 김미옥3/이보람, 강건근, 이숙영3, 김현7, 정소영, 김미정/ 최현숙
금요철야 /	장인선, 최명숙5, 김미정7, 김미옥3/이보람, 강건근, 이숙영3, 김현7, 정소영, 김미정/ 최현숙
수요예배 /	장인선, 최명숙5, 김미정7, 김미옥3/이보람, 강건근, 이숙영3, 김현7, 정소영, 김미정/ 최현숙

■ 헌 금 위 원

주일 1부 / 주일 2부 / 및 저녁 예배	김승은, 광희자, 조연희, 이영심, 이세론, 박정숙21, 강현미, 정영민, 이민선2, 한영희, 홍세현
금요철야 /	김승은, 광희자, 조연희, 이영심, 이세론, 박정숙21, 강현미, 정영민, 이민선2, 한영희, 홍세현
수요예배 /	김승은, 광희자, 조연희, 이영심, 이세론, 박정숙21, 강현미, 정영민, 이민선2, 한영희, 홍세현

■ 봉 사 위 원

식 당 /	강영숙, 박현호, 이미경2, 오현주, 최애숙, 표순희, 덕화, 남옥, 자은, 김연례, 백우경, 성미원, 임성심
성 미 /	1부: 김양남, 2부: 김혜숙4

제 목 : 선 (6) - 모세 ③

본 문 : 민수기 12:3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 위한 40년 연단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중심에서 감사를 드린 모세의 선에 대해 증거합니다.

1. 연단을 받으면서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모세의 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이 모세에게는 '자기' 라는 것이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지는 시간이었지요. 자기가 죽어진다는 것은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이론과 계획,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無)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연단을 받으면서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 두 번째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게 되면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러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으며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모세는 연단을 통해 자기를 철저히 깨뜨리고 내려놓으니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전에 애굽에서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을 느끼게 되니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마음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매일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보면서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연단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해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연단의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2. 자기가 죽어지는 연단을 신속히 통과하여 변화되려면

연단을 통해 모세처럼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악을 발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단 중에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것을 잃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좌절하고 낙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 의와 선, 내가 가진 지식적인 믿음으로 그 연단을 참아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적인 것으로 연단을 참은 사람은 한계에 이르면 폭발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질의 연단을 심히 받으면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섬었습니다.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 아끼며 구제하고 헌금도 했지요. 그런데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 보기에 민망하고 서글퍼지지만 들은 말씀이 있기에 어찌하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역장님이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섬으시면 당연히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이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할례에 좀 더 마음 쓰시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도 좀 온유한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남편에게도 좀 더 부드러운 아내가 되어 주시고 구역 식구들과도 화평을 좇으면 좋겠어요.”

이때 정말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고자 했던 분이려면 이 순간에 ‘아멘’이 나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행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고 더 온유하며 화평을 좇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변화되기 위해 감사함으로 나아가지요. 이것이 연단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 의와 선 가운데 참아 온 분이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지역장님이 얼마나 나에게 대해 안다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서운해 하며 불편한 감정이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형편에도 이렇게 심고 행했는데.’ 라는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 중요한 영적인 깨우침에 대해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폭발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래, 내 마음 발이 약하니까 아무리 해도 축복 못 받을 거야.’ 하며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 큰 사명이나 높은 위치에서 쓰임 받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위치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예전에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했구나.’ 고백하며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시간, 물질, 정성을 들여 섬었는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며 비판하고 낙망하지는 않는지요? 중심에서 감사하는가, 혹은 서운해하는가에 따라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3.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해야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보기에 잘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권면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너무 힘들게 고통받았다는 아픔이 있으면 누가 권면을 해 줘도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립니다. 내 입장과 상황을 몰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참된 내려놓음이고 그럴 때 연단이 끝나고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 중에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택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회장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시작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철저히 느끼신 분입니다.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일을 계획하며 나가셨지만 7년간의 병고를 겪으면서 모든 자신감도 자아도 철저히 깨어집니다. 아무리 살고자 발버둥 쳐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깊이 빠지기만 했지요.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부채는 늘어만 가며 가족들, 일가친척들은 외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회장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고,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크게 이루고도 “저는 사교성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해서 당회장님께서 편하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쌓아야 될 공의를 최선을 다해 쌓으셨지요. 그동안 온갖 핍박과 오해,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해외성회를 이룰 때도 테러의 위협이나 휘방이 있었는데 당회장님께서 그 짐을 홀로 지고 가십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공의를 채우는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다니며 선교했는데, 모세 선지자는 백성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는 성도들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계시니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며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연단을 받을 때 어떠하셨는지요? 연단이 심해지고 길어지다 보니 혹여 그나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연단을 통해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 최고의 권능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약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 연약함이 떠나지 않았지요. 이때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는 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합니다(고후 12:7).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고백합니다(고후 12:9).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대장장이가 쇠로 연장을 만들 때, 먼저는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망치로 열심히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 사용하지요. 우리가 아직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불에도 들어가고 망치로도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연단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런 연단 중에 모세와 같이 철저히 나를 낮추며 내려놓고 모든 것에 감사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고 귀한 도구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면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변화와 축복의 길로 가는 기회로 삼아 마지막 때 귀한 성령의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반디앤루니스 (www.bandinlunis.com ☎ 1577-403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알라딘 (www.aladin.co.kr ☎ 1544-2514)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37-7632)

제 24과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읽을 말씀 / 고린도전서 13:4~5

외울 말씀 / 잠언 16:18

참고 말씀 / 야고보서 4:10

교육 내용 / 누구에게든지 무례히 행치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생명
다해 섬기는 최고의 사랑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한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남보다 우월하다 느끼고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또 일이 술술 풀리고 잘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대거나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싫어하시는 악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이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나뉘었던 바벨탑 사건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1.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제일로 여깁니다. 매사에 상대를 무시하고 앞잡아보며 가르치려 하지요. 자신을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준 사람이 나 질서상 뒷사람까지도 무시합니다.

윗사람이 어떤 권면이나 지적을 해 주어도 “뭘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네.”라고 불평하거나 “그 정도는 나도 다 아는데... 잘할 수 있는데.” 하고 귀찮아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곧잘 변론이 생기고 자기가 옳다며 혈기를 내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데도 잘 모르지요. 교만하면 자신이 틀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설령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가 틀려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백 퍼센트 확신이 있어도 만에 하나 자신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지요. 굳이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그 만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가난하든 배움이 적든, 힘이 약하든 진심으로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요. 모든 영혼은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크게 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눈에 띄게 자신을 뽐내고, 남을 무시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을 육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여 진리를 알고 버리기 위해 노력하면 비교적 쉽게 버려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을 들어 많이 압니다. 직분과 사명을 받아 위치가 높아지지요. 그러나 자신이 아는 말씀을 마음에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또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진리로 옳고 그를 분별한다 하지요. 마음이 높아지니 꼭 지켜야 할 절차도 무시해 버립니다. 명백히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인데도 '나는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괜찮다.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요. 이처럼 높아진 마음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하셨습니다. 즉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 주시지요.

사람은 누구나 성결하기 전에는 교만해질 수 있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 죄성을 뿌리째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같은 기도로 온전히 뽑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나올 수 있지요. 마치 잡초를 잘라내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고, 생명 다해 섬기는 최고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작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은 썩고 말지만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끝을 알 수 없는 대양에 이르러 생명의 보고를 이룹니다. 이처럼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자,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식사 매너, 대화 매너, 전화받는 매너,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등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한 예절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바른 몸가짐과,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심어 줍니다. 반대로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더구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인사법이나 대화법 등 나라나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무례히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자칫 예의 없는 행동이 나오거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례를 범하는 것일까요?

가령, 예배 시간에 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상사 앞에서 조는 것도 무례한데 하나님 앞에 존다는 것은 큰 실례이지요. 또 예배 시간에 대화하거나 탄생각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배 도중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돕는 사명 때문에 나가는 경우를 빼고는

끝까지 자리에 앉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도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마음 다해 드려야 하지요. 찬양이나 기도 시간은 물론 헌금이나 광고 시간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늦으면 민망한데 예배에 지각한다는 것은 너무 불손한 행동이지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입니다. 이 밖에도 술 담배를 하고 예배드리거나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지요.

예배에 나올 때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 그대로 아무렇게나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복장은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에티켓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바로 오는 경우는 예배 시간에 맞춰 서두르다 보면 작업복 차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쁜 일과 중에도 어찌하든 예배에 참석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상대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급한 일로 툭툭 쳐서 기도를 중단시킨다면 윗사람과 대화하는데 불쑥 끼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누가 자신을 부른다고 곧바로 멈추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이지요. 마무리 기도까지 마친 후 응수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전은 예배실뿐 아니라, 마당과 부속 시설 등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큰소리로 다투거나 사업이나 연예인, 드라마, 오락 등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물을 함부로 다루어 상하게 하거나 헌금봉투를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요. 성전 부속 사무실에서 인터넷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는 것 역시 명백한 매매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바자회 같은 행사를 여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도 무례를 잘 범하는 이유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밤늦게 전화를 한다거나 바쁜 사람에게 전화해서 장시간 붙들고 있습니다. 또 약속시간에 늦거나 남의 집에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내 편에서는 친해서라고 여기지만 상대는 다를 수 있지요.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또는 절친한 친구에게 예의 없이 대하다 보면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 쉽게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는 불쾌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사이에도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니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침을 뱉고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도 무례하지요. 무례함이란 결국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진정 사랑하면 늘 배려하므로 무례를 범치 않습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교만이란 ‘남을 나보다 ()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내가 모든 면에서 ()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2. 겸손한 사람은 설령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가 틀려도 ()하지 않는다.
100% 확신이 있어도 만에 하나 자신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를 남겨둔다.
3.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경우와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 금주 과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책자 117~129 페이지까지 읽고 밑줄 쳐오기.

● 알고 넘어갑시다!

‘배려하는 마음’

깜깜한 밤에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다. 마주 오던 행인이 보니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배려는 사소한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다.

이재록 목사 설교 테이프 안내

- ◆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찬송 외에도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 MP3파일 CD, 설교집, 간증책자, 교재를 안내실 옆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시리즈 설교 및 강해설교 제목설교도 갖추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24), 믿음의 분량(27), 사랑장(20), 심계명(11), 열재앙(10), 성령의 9가지 열매(9), 팔복(9), 출애굽기 강해(16), 레위기 강해(18), 고린도전서 강해(84), 욥기 강해(198), 잠언 강해(299), 요한계시록 강해(100), 천국(59), 지옥(21), 요한복음 강해(221), 창세기 강해(진행중), 요한일서 강해(진행중) 외 다수

구입 및 문의처 / TEL 02-867-7455

온라인번호/ 우체국 013912-01-000175
(예금주/ 만민교회 서점)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전체심방목사: 이종원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 1교구장 정리라 (부:이성숙) 구로구(가리봉동 04-139번지)
- 2교구장 도유리 (부: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 09-133번지)
- 3교구장 김은혜 (부:박갑숙) 구로구(가리봉동 2동 3동)
- 4교구장 김은혜 (부:주지영) 구로구(구로본동 1동 1동 2동 2동 3동 3동 4동 4동 5동 5동 신도림동 고척동 고척2동)
- 5교구장 장정미 (부:정동임) 구로구(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천왕동 횡동 은수동 궁동)
- 6교구장 장정미 (부:권영남) 양천구
- 7교구장 고경아 (부:황미경) 영등포구(신길동 여의도동)
- 8교구장 고경아 (부:송안희) 영등포구(대림동 도림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문래동 양화동)
- 9교구장 류순주 (부:최영신)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 10교구장 이달천 (부:김영석) 동작구(성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 11교구장 강경희 (부:송재성) 동작구(대방동 노랑진1동 노랑진2동 본동)
- 12교구장 이성철 (부:서동욱) 동작구(신대방동 신대방2동)
- 13교구장 이성철 (부:나진홍) 금천구(간성동)
- 14교구장 천우진 (부:이석규)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은사동 옥길동)
- 15교구장 천우진 (부:문신현) 광명시(하안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 16교구장 한지민 (부:원원희 권순희)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 17교구장 임학영 (부:박광현) 관악구(신림동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난곡동 남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 18교구장 임학영 (부:차천환) 관악구(보라매동 언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 19교구장 서덕분 (부:조은영)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0교구장 강인도 (부:노영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 21교구장 구희선 (부:김복심) 인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주현권

- 22교구장 김수정 (부:정진영)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23교구장 김수정 (부: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 24교구장 임환택 (부:차경숙)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25교구장 김승신 (부:박애형)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 26교구장 김승신 (부:최영자)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27교구장 이지영10 (부:이영인) 인천시(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군)
- 28교구장 송지형 (부:이영철)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29교구장 한순영 (부:조미정)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 30교구장 김진아 (부:강순길) 안산시 시흥시
- 31교구장 김현주 (부:김영삼) 부천시
- 32교구장 심푸름 (부:안성현) 인천시(서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 중국교구장 황금란 (부:신두천, 조영숙) 중국1교구(중국동포)
- (부:윤영자, 박태욱) 중국2교구(중국인)
- 해외교구장 이지영30 (부:오인숙, 한금주) 해외교구(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남

예배시간/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장 소/ 2성진, 1유아실

문의전화/ 02-866-3206, 02-818-7411~3

만민선교원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원 훈/ 사 랑

교육특색/ 연령에 따른 능력별 영재 교육

모집대상/ 취학준비, 영재교육반(6,7세)

유아교육반(4,5세)

홈페이지/ www.manminkids.org

문의전화/ 02-818-7421, 02-864-3398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를 인도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교우를 새교우환영실(본당 건너편)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5주 교육프로그램이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에서 있습니다.

• 당회장님 동정

- 당회장님의 외국어 저서 451번째 「천국(상)」 크로아티아어와 452번째 「천국(하)」 보스니아어가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천국(하)」 리투아니아어, 「영혼육(상)」 스웨덴어, 「치료하는 여호와」 파갈로그어가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신앙칼럼이 「크리스찬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시사뉴스」 등에 매주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교회 소식

- 만민뉴스 792호를 발행하였고, 영어(545호), 중국어(429호), 스페인어(238호), 러시아어(203호), 포르투갈어(93호), 아랍어(74호), 우크라이나어(61호), 불가리아어(53호) 신문을 인터넷(PDF)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정기 원로회가 다음 주일 저녁예배 후 1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맥추감사절(7월 2일)을 맞이하여 학습문답 및 세례문답을 실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오늘 오후 2시, 학습문답(2유아실), 세례문답(3성전 앞쪽)
문답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답 책자는 교회 서점에서 구입)
※ 학습식: 6월 18일(주일) 2부 대예배 후 본당
세례식: 6월 25일(주일) 2부 대예배 후 본당
- 새교우를 위한 6월 성령충만기도회가 다음 주일 2부 대예배 후 오후 1시 50분에 2성전에서 있습니다.
- 2017년 아동·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오후 7시에 4성전에서 있습니다.
- 아동주일학교/ 2017년 여름성경학교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 대상: 가나안·청년선교회, 남·여선교회
※ 문의: ☎ 818-7300, 818-7201
- 총회에 납부할 세례인 부담금(1인당 3천원)을 6월 18일(주일)까지 각 교구장(남·여선교회) 및 지도교사(학생 이상)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빛성가대 신입대원 오디션이 6월 21일(수) 수요예배 후 닛시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 대상: 50세 이하 여성도 (자유곡 1곡)

- 남선교회총연합회/ 「제17회 말씀퀴즈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암송 자료 (중요 50구절, 오늘의 말씀 전체 구절)를 2부 대예배 후 본당 입구에서 배포합니다.
- 당회장님 저서를 (주보 맨 뒷장 참조)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주요 전자책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교우 소식

새교우를 위한 5주 교육 프로그램/ 매주일 오후 2시 새교우환영실

※ 금주 강사: 강경희 전도사 (제목: 기도하는 요령)

※ 새교우를 위한 스마트폰 홈페이지(교회 소개 및 홍보 영상 등) nc.manmin.org

• 지교회 소식

춘천만민교회(담임 김동헌 목사)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 6월 18일(주일) 오후 3시 30분 (교회 차량출발: 오전 8시 30분)

※ 강사: 길태식 목사 (대전만민교회 담임), 특송: 권능팀

통영만민교회(담임 주민환 목사)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및 성령충만기도회

※ 6월 21일(수) 오후 7시 (교회 차량출발: 낮 12시 30분)

※ 강사: 이희선 목사, 특송: 권능팀

※ 지교회 창립 기념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차량 배차 관계로
기회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818-7234

• 교구 소식

남지역장 임역원 월례회/ 6월 18일(주일) 1부 대예배 후 연합회 사무실

여조장 월례회/ 6월 12일(월) 오전 11시 4성전 (간중: 장미선 권사)

1세대 구·부구역장 성령충만기도회/ 6월 14일(수) 오전 11시 (인도: 이미경 목사)

2세대 교구장·지역장 월례회/ 6월 12일(월) 오전 11시 새교우환영실 (인도: 조대희 목사)

4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6월 15일(목) 오후 9시 김용석 장로 맥 (설교: 김은혜 전도사)

19교구 연합기도회/ 6월 13일(화) 오전 11시 강동지성전 (인도: 서덕분 전도사)

20교구 연합기도회/ 6월 13일(화) 오전 11시 분당지성전 (인도: 강인모 교구장)

20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6월 15일(목) 오후 9시 분당지성전 (설교: 조수열 목사)

27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6월 15일(목) 오후 9시 인천지성전 (설교: 이지영 전도사)

28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6월 15일(목) 오후 9시 수원지성전 (설교: 주현권 목사)

32교구 연합기도회/ 6월 13일(화) 오전 11시 부평지성전 (인도: 신푸름 전도사)

중국교구 연합기도회/ 6월 13일(화) 오전 11시 3유아실 (인도: 황금란 전도사)

중국교구 남장년 연합구역예배/ 6월 15일(목) 오후 9시 3유아실 (설교: 황금란 전도사)

※ 금주 성전 청소: 2교구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본당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식

장로회

1장로회 월례회/ 오늘 저녁 예배 후 장로회 사무실

2장로회 월례회/ 오늘 저녁 예배 후 1유아실

남선교회총연합회

연석회의/ 1부 대예배 후 곧바로 5남선교회 식당 (대상: 기관장 이상)

가나안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벽산 디지털밸리 3차 오렌지스폰 식당

2가나안선교회 모임(간증의 시간)/ 오늘 저녁예배 후 총부장사무실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2성전

※ 설교: 조현숙 총지도교사, 찬양 인도: 나은영 권사

청년선교회연합회

주일 낮 모임(기관 모임)/ 2부 대예배 후 1·2청년(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3·4·5청년(코오롱 빌라트 2차 식당)

화요 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성전

※ 설교: 정구영 목사, 찬양 인도: 안수연 자매

빛과소금선교회

수요 찬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4성전

※ 설교: 신동초 목사(녹화 방송), 찬양 인도: 장영아 집사

학생주일학교

공과 모임/ 1부 대예배 후 중1(임마누엘성가대 연습실), 중2·중3(하이엔드 2차 식당)

고1·고2(하이엔드 1차 식당), 고3(한화 비즈메트로 식당)

교사 기도회/ 매주일 오전 9시 1유아실

토요 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성전

※ 설교: 김기석2 목사, 찬양 인도: 최효진 집사

아동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매주일 오전 9시 4성전 (인도: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토요 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성전

※ 설교: 교장 조민경 교육전도사, 찬양 인도: 김수경 집사

만민봉사대

예절교육/ 오늘 저녁예배 후 2유아실 (강사: 최선숙 권사)

국내선교

교육인선교회 월례회/ 6월 17일(토) 오후 1시 이명훈 권사 맥 (인도: 김수정 목사)

• 성도 소식

김정호 장로(18교구, 3-4남)/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용환 성도(1가나안/ 16교구, 4-1남 김옥철 성도·3-3여 이미경 집사 자녀)

6월 17일(토) 오후 2시 「농심본사 웨딩홀 지하 1층」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 주례: 주현권 목사

•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꽃꽂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사찰탐

GCN, 우리 영향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6/11 일

- 00:00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2
- 04:50 - '출애굽과 홍해 사건' 정구영 목사
- 18:30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수정 목사
- 20:00 - 만민의 간증 122

6/12 월

- 00:00 - 모두 드려요 49
- 04:50 - '회개에 합당한 열매' 1'이수진 목사
- 10:20 - '전도' 1'이재록 목사
- 13:00 - '마음밭을 개간하자' 7'이재록 목사
- 15:30 - '선' 14'이재록 목사
- 19:00 - 옛날 옛적에 2 (2)

6/13 화

- 00:30 - '영의 세계 65' 이희선 목사
- 05:00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구희선 전도사
- 06:3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 해보기> 21
- 08: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1'이재록 목사
- 11:20 - '열 재앙 38' 정구영 목사
- 12:05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14
- 17: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3'이재록 목사
- 19:40 - 회상 16

6/14 수

- 00:30 - 권능 스페셜 20
- 05:00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경아 전도사
- 07: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4'이재록 목사
- 08:0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이재록 목사
- 11:20 - '옴기 강해 31' 신동초 목사
- 13:00 - '십계명 2' 이재록 목사
- 15:30 - '선' 16'이재록 목사
- 20:05 - 만민의 간증 124

6/15 목

- 00:00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3
- 05:00 - '성령강림과 초대교회' 이수진 목사
- 07:05 - '믿음을 척량하시니' 5'이재록 목사
- 10:20 - '성경적 결혼관' 2'이재록 목사
- 14:00 - '사랑장' 4'이재록 목사
- 15:00 - 모두 드려요 49
- 17:00 - '믿음을 척량하시니' 5'이재록 목사
- 19:45 - 내 마음의 찬양 28

6/16 금

- 00:30 - 마지막 때 13
- 05:00 -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니' 2'정리라 전도사
- 10:50 - 회상 2 (6)
- 15:30 - '축복' 1'이재록 목사
- 19:00 - '우리 삶의 등불' 93' 이재록 목사
- 20:40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6/17 토

- 11:00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2
- 14:00 - '사랑장' 6'이재록 목사
- 16:30 - 영적인 존재들 7
- 19:30 - 마지막 때 13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824-7107 / webmaster@gcnetv.org)

※에브리온TV 507번 및 KT o!leh tv 882번(HD채널, 별도 편성)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위성 AS 문의 : 1577-2073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20분
- 3분 설교_30분(매주 새로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기도_40번(한국어),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50,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_70분
- 환자기도는 02-1570 (교환번호 3200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오전 10시 /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오후 3시, 수요일예배_오후 7시
금요일예배_오후 11시
다니엘 찬양 기도회_매일 오후 9시
- 기타 녹화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e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etv.org

- Jun. 11 (Sun.)

(John 10:14) "I am the good shepherd, an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 Jun. 12 (Mon.)

(John 10:15) "Even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 Jun. 13 (Tue.)

(John 10:27)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 Jun. 14 (Wed.)

(John 10:37) "If I do not do the works of My Father, do not believe Me."

- Jun. 15 (Thu.)

(John 10:38) "But if I do them,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believe the works, so that you may know and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 Jun. 16 (Fri.)

(John 11:9) "Jesus answered, 'Are there not twelve hours in the day? If anyone walks in the day, he does not stumble, because he sees the light of this world.'"

- Jun. 17 (Sat.)

(John 11:10) "But if anyone walks in the night, he stumbles, because the light is not in him."

금주의 성경구절

6월 11일(주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요 10:14) 양도 나를 아는 것이

6월 12일(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요 10:15)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6월 13일(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요 10:27)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6월 14일(수)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요 10:37) 나를 믿지 말려니와

6월 15일(목)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찌)라도 그 일은
(요 10:38)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6월 16일(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시가 아니냐
(요 11:9)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6월 17일(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요 11:10) 실족하느니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 국 (상 · 하)

지 옥

영혼육 (상 · 하)

사람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 · 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 · 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 · 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난한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자해/ 자기계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시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 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잠들갈지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아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십계명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장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집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데스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 · 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걸음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들을 내리라/ ... 3

옛새 동인의 만나 (상 · 하)/ 설교자료, 구약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6월 추천도서

Steady seller

이재록 목사의 신앙 간증 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세계적인 권능의 목회자가 되기까지



칠 년간의 저절란
병고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의 종이 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축결이 함께하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 6. 1. (목) - 6. 30. (금)

서평을 쓰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하여
시은품을 증정합니다.

(A4 반사이즈 분량, 만민서점 접수)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람이여/ 성지순례 회보집
칼럼 세례 문답서

핸디북

사람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십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람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위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4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4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2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00	2성전, 3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4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3성전
아동토요찬양예배	토요일 오후 3:00	4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40 저녁/ 오후 1:30	

찾아오시는 길



• 교회버스

평일: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30분 간격 운행(오전 8:30 ~ 오후 10:10)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문의: 차량국/ ☎ 02) 818-7391~4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 5, 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 29, Digital-ro 26-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대표 02-818-7000, FAX 02-851-3846, 부설: 만민기도원 02-866-3206, 만민선교원 02-818-7420

☎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 02-830-5320 (교향 40번), 02-1570 (교향 3200번)